

사랑은 좋은 해석을 만든다

(사도행전 21:1-14)

바울과 일행은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두로와 가이사랴를 거치며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성경은 결박과 고난이 예비된 예루살렘의 결정적인 사건으로 곧장 건너뛰지 않고 그곳으로 향하는 긴 여정을 상세하게 펼쳐 보입니다. 이 여정 속에는 주머니 속에 들어간 날카로운 송곳처럼 결코 감출 수 없는 본질적인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령은 성도들의 영혼에 거룩한 불편함과 예리한 찔림을 주어 안주하려는 본성을 깨우고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밀레도에서부터 두로와 가이사랴에 이르는 전 과정은 온전히 성령의 강력한 지배와 인도하심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 각 성에서 증언하는 환난의 경고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두로의 성도들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올 결박을 내다보았습니다. 가이사랴에서는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묶는 시각적인 행동을 통해 유대인들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을 예언했습니다. 성령의 계시는 세 번 모두 고난과 투옥이라는 하나의 결말을 가리키며 일관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성령의 계시를 대면한 사람들의 반응과 결론은 전혀 다른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물론 가이사랴의 동역자들과 바울의 일행마저도 함께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만류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 일관되게 주어지는 경고를 접한 사람들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길을 피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루살렘에 결박이 예비되어 있다고 사실을 알려주셨을 뿐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금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사건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해석 체계가 서로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떠한 눈으로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동일한 일이라도 사랑과 믿음으로 바라보면 주변을 따뜻하게 살려내지만 자기중심적인 잣대로 보면 불평과 비방이 앞서게 됩니다. 제자들과 일행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고난의 회피를 우선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아 계시를 해석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위협과 손해를 피하고 안정을 지키려는 완고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의 풍성한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고도 막상 환난을 만나면 이를 피해 달아나는 수단으로 믿음을 남용합니다. 겉으로는 큰 물질적 성공을 거두며 교회 건축과 선교에 앞장섰다고 자부했으나 불의와 타협하다가 끝내 몰락해 버린 어느 기업인의 모습은 자기중심적 해석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비행기 편명이나 우연히 마주친 시곗바늘의 숫자, 마음에 드는 상대와의 연속된 마주침 등을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며 자기합리화에 빠지는 일들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처럼 자기 이익과 만족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때 사람은 쉽게 허무한 욕망에 굴복하게 됩니다. 가치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막대한 보물 도자기를 고양이 밥그릇으로 내버려 두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반면 초기 미국 이민자들은 하루 열여섯 시간씩 허리가 휘어지는 고된 세탁소 노동을 감내하면서도 오직 주일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영원한 가치를 붙들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싸움에는 결코 영적 실패나 후회가 따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해석은 동역자들과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바울은 닥쳐올 모든 사건을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유익한가라는 원칙 하나로 판단했습니다. 그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조차 유익하다는 확고한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로막으며 슬피 우는 동역자들을 향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담대히 선

포합니다. 그의 최종적인 판단 기준과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존재했습니다. 바울의 심장 속에는 죽음보다 강한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꺼지지 않는 사랑이 바울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에 그는 닥쳐올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가장 숭고하고 거룩한 해석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시련과 역경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고도 기본적인 인사와 섬김을 생략한 채 주님을 무시하고 냉대했습니다. 그러나 멸시받던 죄 많은 여인 마리아는 주님이 홀대받으시는 자리에 나아가 그분 앞에 온전히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발에 거룩한 입을 맞추고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으며 자신의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정성껏 닦아 드렸습니다. 온 마음을 쏟아부은 여인의 희생적 사랑을 보신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온 세상 어디서나 그녀의 행적을 기억하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할 단 하나의 절대적인 힘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내면에 가득 차오르면 어떤 가혹한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안락과 헛된 야망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당당하게 붙들게 됩니다. 나의 편안함과 이익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영적 능력과 지혜가 그 사랑으로부터 솟아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결코 낙심이나 절망이 머물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풍성히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낳습니다.